

10 종합

역량진단 앞둔 교직원 “탄탄하게 준비 중”

고도희 기자 kdhistory@khu.ac.kr

학부 교직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이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앞두고 있다. 우리학교 학부와 교육대학원은 지난 5주기 평가 때 B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우수교사 양성을 위해 1998년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다. 교육과정, 환경,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우리학교는 학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 재교육과정)이 대상이다.

우리학교 교직원과 교육대학원은 4주기(2015~2017년) 평가 때 C등급을 받아 양 캠퍼스 교직이수자 선발정원이 190여 명에서 60여 명 감축됐다. 그러나 지난 5주기(2018~2021년) 진단에서 한 단계 오른 B등급을 받았다.

결과는 A에서 E까지 5개 등급으로 산출되며 C등급부터 교원 양성정원 감축 대상이다. A등급을 받으면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이라는 명예와 함께 부총리 표창을 받는다. B등급은 현행 유지, C등급은 정원 30% 감축, D등급은 정원 50% 감축, E등급은 폐지 조치가 진단으로부터 2년 후 적용된다.

교육대학원은 일반인 대상으로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는 ‘양성 과정’과 현직 교원의 역량을 향상하는 ‘재교육 과정’으로 나뉜다. 양성 기능이 없는 재교육 과정은 정원 감축과 폐지 절차를 밟지 않고 전공 시설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6주기 역량진단의 큰 틀은 5주기 진단과 2021년 발표된 「초·중등 교원양성체계 발전방안」에 기초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견되는 중등교원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교원 양성에 집중하기 위해 사립대학 교원양성수를 줄이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5주기 진단 결과 우리학교는 교원 영역의 ‘교과교육과정의 전임교원 확보율’, 성과 영역의 ‘교원임용 및 취업 성과’ 항목 등에서 약세를 보였다. 교직원에서는 보안을 위해 ‘교육과정’, ‘인·적성’, ‘교육환경’ 등의 항목에 집중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보완, 인성교육센터와 교직상담센터 신설, 자체 만족도 조사, 모의 수업 체계 강화, 행정지원 충실성 강화, 성인지 교육 확대 등 구체적인 지표별 평가 준비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대학원 심영옥(미술교육) 부원장은 “준비부터 실제 평가까지 학부 교직원과 교육대학원이 일원화해 같은 목표와 성과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교육대학원장을 비롯한 교수진과 교직원이 일심단결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좋은 평가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 교직주임 성열관(교육과정) 교수 역시 “공교육 담당 전문가를 키워낸다는 과업은 대학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며 “교육부 기조에 따라 학부 교직이수 과정은 축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라उन관 객석 기부 기념 공연 '피어나라 경희!'가 열렸다. 객석 기부 캠페인으로 시설 및 음향, 영상 시스템이 개선됐다. (사진=김유성 기자)

크라उन관 객석 기부 기념 공연 개최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김유성 기자 yusung7179@khu.ac.kr

【서울】크라उन관 객석 기부 기념 공연 ‘피어나라 경희!’가 지난 2일 열렸다. 행사는 객석 기부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크라उन관은 개관 50주년을 맞았다. 그간 콘서트, 새내기새로배움터 등 다양한 교내 행사를 위해 사용됐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20년, 평화의전당 관리운영팀이 대외협력처에 시설 개선을 제안했고 객석 기부가 시작됐다. 대외협력팀 박성화 팀장은 “크라उन관 음향 및 영상 시스템을 개선하고 좌석을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 객석 기부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객석 기부 캠페인은 기부자가 원하는 문구를 본인 이름과 함께 좌석 뒤에 새기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좌석에는 등급을 매겨 VIP석 50만 원, R석 40만 원, S석 30만 원 순으로 기부 금액을 다양하게 설정했다. 현재 총 542석 중 370석(68.3%)이 참여했고 목표액 2억 3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동문, 교수, 교직원, 학생이 주요 참여자다.

이날 기념행사는 엄주원(체육학 2005)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식전 행사와 1부와 2부로 나뉜 메인 행사로 구성됐다. 김진상 총장은 “크라उन관은 대학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모교 발전에 헌신해 주신 기부자에게 감사드립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메인 행사는 크라운관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과 더불어 대외협력처 이기라 처장의 기부 경과보고로 구성됐다. 식전에는 우리학교 역사를 보여주고자 중앙도

서관 1층과 4층, 자연사 박물관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2부에서는 공연이 진행됐다. 음악대학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 무대를 꾸몄으며 권인하(환경보호학 1979) 씨와 김세환(신문방송학 1968) 씨 등 동문 가수 공연이 뒤를 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최희용(미술교육학 1972) 씨는 “경희대를 졸업한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기부를 결심했다”며 “동문과 후배, 더불어 학교에 도움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했다. 또 다른 기부자 황영옥(영문학 1962)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학교를 졸업한 것이 더 자랑스러워진다”며 “시설 개선에 힘써주시는 모든 구성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애교심을 담아 좌석 뒤에 ‘경희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라는 문구를 새겼다”고 덧붙였다.

산학협력단장 갑질 신고… 조사 결과는 ‘무혐의’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가 산학협력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공익 제보자와 피해자를 향한 인사보복을 고발하는 대자보를 부착했다. 산학협력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김 전 산학협력단장은 피해 직원과 함

께한 해외 출장에서 직원에게 다림질을 시키거나, 소파에서 취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평일 업무시간 외, 주말이나 공휴일, 심지어 야 시간에도 수시로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피해 직원의 출장비를 임의로 강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김 전 산학협력단장 본인의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강의를

대리 수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주장했다.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A 씨는 증거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기관에서는 산학협력단의 관리·감독기관인 학교 측으로 자체 조사를 명령했으나 학교는 이를 산학협력단 자체 감사팀으로 사건 조사 권한을 위임했다. 감사팀은 공정성 시비를 우려

해 외부 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법인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 복무의무위반 미확인, 직장 내 괴롭힘 미성립”으로 의결되며 김 전 산학협력단장의 ‘갑질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김 전 산학협력단장 역시 단순 면직처분으로 처리되며 산학협력단장의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다.

신고한 직원 A 씨는 대학 측이 신고자에게 김 전 산학협력단장의 무혐의 결과를 통보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보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다른 팀으로 강제 전보시켰다”고 전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직원의 전보 조치는 해당 신고와 무관하며 인사 관련 사항이므로 사유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